

가금위생 해외뉴스

오경록 ▶코너



새로운 발포소독법

소독효과는 약액의 농도가 높은 쪽이 강하지만 무제한 농도를 높이는 것은 소독비용이 상승하고 소독약성분이 주위환경으로 유출되는 문제로 좋은 소독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양계장에서 소독약을 고농도로 소량 산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포소독법을 일본 에자이회사에서 개발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방법은 고농도의 소독액을 특수한 발포조작장치가 있는 발포소독기를 이용하여 포말상태로 계사에 산포한다. 사용 소독약은 일부의 발포성이 우수한 역성석けん형태의 소독약으로서 이용 가능하다.

이는 일정하게 높은 소독효과를 얻으며 소독약이 오수처리조나 하천등으로 흘러가는 것을 줄이고 전기기구류 내부로 소독약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고압분사수에 의한 소독약의 비말이나 미세입자의 발생이 적어 소독작업자에 약제의 노출과 흡입을 크게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AH. 93. 10)

육계 마력병감소에 성공

후구시마현에서 개최된 전국식육위생검사소 협의회 동북지역 연수회에서 아오모리현의 식육위생검사소는 폐기처분 이외의 방법이 없는 육계의 마력병의 발생을 대폭 감소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아오모리현 내에서는 50일령 전후에 출하하여 도계장에서 도계시 마력병의 병변으로 폐기처분되는 일이 많아 사육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였었다. 도계검사가 시작된 '92년 4월 당시에는 도계장에 따라서는 폐기율이 도계수의 45%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한 사육농장에서도 부화장에 따라서 마력병 발병율에 차이가 크게 났는데 이는 주로 마력병백신접종 기술의 차이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부화업자와 양계업자 등에 백신접종철저 및 접종기술지도와 계사의 위생관리지도를 지속한 결과 마력병의 폐기율을 1% 미만으로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폐기된 닭의 90% 정도가 마력병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큰 성과로 볼 수 있다(NK. 93. 11)

부화란의 부화중의 무게감소측정

미국 조지아대학 조셉 멀딘은 부화중의 수분감소율측정에 따른 병아리의 품질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부화중인 부화란의 적당한 무게감소범위는 입란전 종란무게의 12~13%이며 대부분 종란의 부화중에 수분손실율은 11~14%이다. 이러한 난중감소는 난각의 기공을 통한 수분증발에 의한 것으로 발육중의 수분손실율은 발생기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준다.

부화기간중 입란당일과 14일경부터 입란전(18일령)사이의 어느날에 난중을 측정할 다음 매일 평균 수분감소율을 산정하여 20일령의 수분감소율을 예측한다. 만일 예정수분손실율이 14% 이상이면 발생기의 습도를 높이고 11% 이하이면 발생기의 습도를 낮추어서 발생기에서 적정수분 손실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발생된 병아리는 크지만 탄력이 적고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부화중 수분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발생기 습도조절, 발생실습도, 계절, 환경상대습도, 종계일령, 종란크기, 난각질, 난각기공율이다. 부화중 난중의 정기적 측정은 양질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한 우수한 품질관리방법이라고 하였다.(HP. 93. 8)